



■ 집중탐구- '인성교육' 불교에 답 있다

# 마음 치유에 대한 가르침 불교 안에 다 있어

## 4. 불교인성교육 좌담회

### ▲ 좌담 참석자

- 김용환(한마음과학원 실장)
- 김영래(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박사)
- 정여순(중학교 교사)
- 이은희(중학교 교사)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이하 한나무)의 성과를 통해 충분히 살펴봤다. 불자가 아닌 어린이청소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성교육, 그것은 불교 안에 있었다. '인성교육 불교에 답 있다' 시리즈를 마감하며 한나무 개발진과 교육문제 연구 전문가, 한나무를 직접 교육현장에 적용시키고 있는 교사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봤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고 마음 치유를 근본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은희 · 정여순 교사, 김용환 실장, 김영래 박사(좌로부터).

기자:오늘 이 자리에는 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신 자리입니다. 과연 불교인성교육이 무엇인지, 또 불교계가 어떻게 힘을 모아가면 좋을지를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래**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났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인성파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시기였지요. 제가 있는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의 경우, 2005년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기자:인성교육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영래**탐방과 자료 수업, 역할극, 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 · 질서 · 준법 등 도덕 덕목 중심의 예절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학계에서 교재개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인성하면 유교와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지 못합니다.

기자:왜 인성교육이 필요한지 또는 인성교육의 실태에 대해 체계적인 부분도 살펴봐 할 것 같습니다.

**정여순**요즘 아이들에게서는 예전 같은 공경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직설적으로 싫으면 "싫어요"라고 바로 이야기해요. 아이들끼리만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종종 부딪치게 됩니다. 한 번 쯤 되돌아서 생각하는 여유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째서 안 되겠냐.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은희**저희 학교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왔어요. 학교 분위기가 예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요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정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이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정규과목에 넣어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는 1주일에 1번씩 인성교육을 재량껏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여순**어느 학교나 '인성교육'이 학교 설립 목표예요. 선생님 스스로 인성교육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과목 안에서 잘 녹여들어가 인성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성적 위주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지만 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기자:불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타종교나 일반 사회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용환**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전체 하에 저희가 조사한 것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원불교가 먼저 시작했고 상당히 활발하지 않나 싶어요. 몇 년 전, 원불교 재단의 경주 화랑고등학교에 가보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1주일에 1시간씩 하더군요. 그때 놀란 것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화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한마음 요전>으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때 참, 우리는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톨릭은 대건고등학교에서 잘 하고 있지요. 학교

## 모든 학교 '인성교육'이 목표, 구체적인 대안 없어 아쉬워 불교계, 단기 프로그램은 있지만 공교육 진입 단계는 아직... 불교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만한 원리 제시할수 있는 종교

가 가톨릭 재단이다 보니 그 교리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본지 635호 12면 참고).

현재 전체 불교계에서 볼 때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단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교육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불교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잠재력은 아마도 엄청합니다. 그런데도 불교계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래**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독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예상 밖으로 종교적 태도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가 많아 공교육화 된 예는 많지 않습니다. 김 실장님 말씀대로 원불교가 마음변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자:이쯤에서 불교인성교육은 무엇이고, 왜 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하는가를 짚어봐 할 것 같습니다.

**김용환**그것은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는 부분인 듯합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령은 다 평등하다' '모든 실존적인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

다. 불교에서 본 인간이란 본래 참된 자유와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어떤 상황에 있던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기를 갖고 자기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는 것입니다. 불성의 자각, 근원적 주체성의 자각, 근원적 자유의 자각이 불교인성교육의 기본입니다.

**정여순**저는 현장에서 왜 불교인성교육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많이 느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까 고민합니다. 일단은 괴로움이 없어야 하지요. 이것은 지극히 우리 삶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자이를 발견하고 완성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불성의 발견'이지요. 즉, 불성을 자각하는 것이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뿌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교인성교육을 펼치는 선생님들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모든 생령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니까요. 자신감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며 믿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은희**저는 체험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마음선원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학 문제도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를 봐도 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불교도 모든 사람이 수긍할만한 원리를 제시할 수 있어요. 쉽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알려줄 수 있죠.

다른 종교도 있지만 누구나 설득할 수 있고, 그 기본을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인 것 같습니다. 너도 있고, 나도 있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편이 불교 안에 있습니다.

**김영래**저에게 말씀드렸듯, 인성교육이 태도교육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인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치유, 마음의 계발에서 이뤄져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치유와 계발은 역시 불교로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마음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탈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마음을 치유하고 계발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불교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을 계속 해나간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한나무는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됐고,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요.

### 화제의 염주 천연 백수정 108 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특별중정 손목단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광명도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딱처울 화를 미리 쫓고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3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공양구로 사용한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대한 계획과 기쁨을 가지고 계신분, 사업을 하고 계신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분, 자녀문제로 고민하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 신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정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 특별 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천연백수정손목단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제사용 백연화 향로 출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의식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에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으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 꿇고 향로에 분향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 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뜻과 후손들은 하얀연꽃으로 신위를 영접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신광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변질되지 않게 베르린 왁스 까지 처리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 있어 가정의 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아 제사때 사용할 수 있다. 가격:98,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 평생부자지갑

여성용 은나노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남성용 숏나노장지갑

### 옴마니반메훬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훬는 부처님 영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묘스럽게 해결된다는 옴마니반메훬는 불경 신묘장구다라니경에 상세히 기록된다.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본 부처님께서 옴마니반메훬를 마음속으로 읊조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묘스럽게 해결된다는 뜻으로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과 복이 들어오게 육자대왕영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이 헛되어 나가지 않게 하는 팔십삼부구 보병을 넣었으며 지갑내부 뒷면에는 앞으로 사는동안 막힘없이 모든일들이 성공되게 하는 비방인 부처님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銀나노까지 처리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다. 출시 8개월 된 옴마니반메훬 복지갑은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묘하게 회복되고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 지는등 모든 가지가지 문제들이 신묘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소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갑이다.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 주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 되게 100일 특별세벽축원 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장지갑6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